유소연, 시즌 첫 2승 세계 여자골프 1위 등극

LPGA 투어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 우승
에리야 쭈타누깐 밀어내고 롤렉스 랭킹 1위 차지

유소연은 26일(한국시간) 미국 아칸소주 로저스의 피너클 컨트리클럽(파71·6331야드)에서 끝난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총상금 200만 달러)에서 우승했다.

올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첫 2승에 성공한 유소연(27·메디힐)이 한국 선수로는 세 번째로 여자골프 세계 랭킹 1위에 등극했다.

유소연은 26일(한국시간) 미국 아칸소주 로저스의 피너클 컨트리클럽(파71·6331야드)에서 끝난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총상금 200만 달러)에서 우승했다.

이날 발표된 '롤렉스 랭킹'에 따르면 지난주 3위였던 유소연은 이번주 평균 포인트 8.83점으로 1위였던 에리야 쭈타누깐(태국.8.58)을 2위로 끌어 내리고 1위에 올랐다.

한국 선수가 여자골프 세계 1위가 된 것은 2010년 신지애(29), 2013년 박인비(29·KB금융그룹)에 이어 유소연이 세 번째다.

이와 함께 2006년 여자골프 세계 랭킹을 발표한 이래 1위 자리에 오른 11번째 선수가 됐다.

초대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을 시작으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 신지애, 미야자토 아이(일본), 크리스티 커(미국), 청야니(대만), 스테이시 루이스(미국), 박인비, 리디아 고(뉴질랜드)에 이어 에리야 쭈타누깐(태국)까지 10명의 선수가 세계 랭킹 1위를 거쳐 갔다.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세계랭킹에서 9위를 했던 유소연은 올 시즌 초반 우승 없이도 꾸준한 성적을 내며 3월 마지막 주 자신의 개인 최고인 3위까지 순위를 끌어 올렸다.

이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ANA 인스퍼레이션'에서 개인 두 번째 메이저 우승을 달성하며 2위에 오르는 등 랭킹 1위 등극을 눈 앞에 뒀다.

하지만 지난달 말부터 2개 대회 연속 부진한 결과로 랭킹이 하락한 사이 쭈타누깐이 새로운 골프여왕의 자리에 올랐다.

절치부심 기회를 엿보던 유소연은 3주만에 복귀한 대회에서 완벽한 우승을 거머쥐며 시즌 첫 다승에 성공했고, 그 결과로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던 랭킹 1위까지 올랐다.

유소연은 2011년 'US 여자오픈'에서 첫 우승을 거머쥔 뒤 2012년 '제이미 파 톨레도 클래식', 2014년 '캐나다오픈'에서 우승했다. 이어 올해 그간의 우승 가뭄을 씻고 2승을 추가하며 통산 5승째를 달성했다.

이달 초 '숍라이트 클래식'에서 컷 탈락하기 전까지 3년 가까이 64개 대회 연속 컷을 통과하는 등 꾸준한 성적을 냈다.

쭈타누깐은 6월 둘째 주 발표에서 85주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던 리디아 고(뉴질랜드)를 제치고 1위에 올랐지만 3주 만에 다시 유소연에게 그 자리를 내줬다.

리디아 고는 3주 만에 3위까지 순위가 떨어졌다. 4~8위까지는 순위 변동이 없다. 렉시 톰슨(미국), 전인지(23), 펑산산(중국), 박인비, 박성현(24·KEB하나은행) 순이다.

아칸소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양희영(28·PNS)이 2계단 오르며 9위가 됐고, 11위 김세영(24·미래에셋)은 10위권 밖으로 밀렸다.

한편, 지난 주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비씨카드.한경 레이디스컵'에서 2연패에 성공한 오지현(21·KB금융그룹)은 무려 30계단이나 뛰어 오르며 76위로 100위 안에 진입했다.

/김민근기자

"지금 데뷔 못해도 실패하는 것 아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

이승우, 내년이면 더 이상 유소년 후베닐A에 머물 수 없어
바르셀로나B 오를 수 없다면 남은 선택지는 이적

'코리안 메시' 이승우(19)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세계적인 명문 클럽인 FC바르셀로나(스페인)의 후베닐A에서 뛰고 있는 이승우는 만 20세가 되는 내년이면 더 이상 유소년 최상위 단계인 후베닐A에 머물 수 없다.

이승우가 그리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바르셀로나에 남아 꿈을 이루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하다.

선행돼야 하는 작업은 바르셀로나B 승격이다.

스페인 규정상 바르셀로나B에는 2명의 비유럽 외국인 선수 만이 포함될 수 있다. 이승우가 바르셀로나에 남으려면 두 자리 중 한 자리를 약속받아야 한다.

이승우는 2011년부터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활약했다. 꾸준히 기량을 끌어올리며 한국 축구의 미래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세계적인 유망주들을 제치고 승격을 보장 받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바르셀로나B로 오를 수 없다면 남은 선택지는 이적뿐이다.

계약 만료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올 여름에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바깥 공기는 이승우에게 그리 나쁘지 않다.

이미 독일 분데스리가 명문인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의 이적 제의가 사실로 드러났고, 프랑스와 포르투갈 등에서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승우는 그동안 고집스러울 정도로 바르셀로나 잔류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서 연을 맺은 신태용 감독이 "뛰지 못하면 퇴보한다. 꼭 바르셀로나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한 단계 낮은 팀에서라도 뛰어야 한다"는 조언을 접한 뒤에도 "지금은 (옮길 생각이) 전혀 없다. 지금 있는 팀에서 하고 싶을 때까지 도전하겠다"고 말했던 이승우다. 하지만 월드컵 종료 후 여러 상황이 전개되면서 그의 심경에도 변화가 생긴 모습이다.

이승우는 26일 스페인 출국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많은 제의가 왔으니 일단 들어볼 것"이라면서 "이제 스무살이니 경기를 많이 뛰어야 한다. 많이 뛸 수 있는 곳을 선택할 것 같다"고 이적 또한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물론 그가 바르셀로나 1군 진입의 꿈을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다. 어디서 도전을 계속하든지 언젠가는 당당히 누캄프(바르셀로나 홈구장)를 밟겠다는 것이 이승우의 생각이다.

이승우는 "만일 데뷔를 못해도 다른 팀에서 좋은 경기력과 결과를 보여준다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 그것이 축구"라면서 "지금 데뷔를 못해도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근기자

2002태극전사들, 소외계층 세탁기 100대 기부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 주역들의 모임인 팀2002가 그동안 받은 국민들의 축구사랑에 보답하고자 사회공헌을 위해 다시 한 번 뭉쳤다.

팀2002는 26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리사이클(Recycle)센터와 함께 하는 2002년 월드컵 4강 15주년 기념 TEAM 2002 세탁기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병지, 이천수, 유상철, 송종국, 최진철, 최태욱 등 당시 선수들과 정해성, 김현태 등 당시 코치들이 직접 참석했다. 또 가수 김경호와 최재훈도 함께 했다.

대한축구협회 김호곤 부회장은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정몽규 회장을 대신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부회장은 "오랜만에 팀2002 후배들을 봐 뿌듯하다. 후배들이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고 있다"며 "리사이클 센터 관계자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 축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나온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잡초처럼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줬다. 축구팬들과 온국민의 힘을 하나로 합쳐 2002 한일월드컵 4강 신화에 못지 않은 영광스러운 시간을 만들자"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 전국 6개 리사이클센터는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소외된 계층을 위해 세탁기 1000여대를 기부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팀2002와 함께 서울 시내 장애인 가정 100세대를 위한 세탁기 100대를 서울 사랑의 열매를 통해 전달하게 된다.

한편 팀2002는 그동안 축구발전기금 1억원과 유소년전용 풋살장 건립기금 2억원 전달, 유소년 장학금 전달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김민근기자

김호곤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신임기술위원장 선임

김호곤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신임 기술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대한축구협회는 "이용수 기술위원장을 대신해 김호곤 부회장을 새 기술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신임 기술위원장은 조만간 새로운 기술위원회를 구성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김호곤 기술위원장은 "대표팀이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서 기술위원장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부족하지만 한국축구를 위해 마지막 봉사를 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호곤 기술위원장은 1970년대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했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과 서울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 올림픽,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당시 대표팀 코치를 지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대표팀 감독으로 8강 진출을 이끌낸 김호곤 신임 기술위원장은 부산 아이파크와 울산 현대 감독을 맡았다. 울산 사령탑으로 있던 2012년에는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ACL) 리그 우승을 맛봤다.

2005년부터 4년 동안 대한축구협회 전무를 역임한데 이어 2015년부터 부회장으로 재직중이다.

/김민근기자